

건축작품과 해석학

Architecture and Hermeneutics

by Choi, Bu Deuk

최부득 / 건축사사무소 공간구성

I. 서

건축작품이 그 근본적 속성인 '기능'을 잃을 때 이미 '건축작품'으로서의 가치는 상실되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기능'만으로 건축작품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음은 자극히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건축작품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관찰, 실험, 계산 등에 의한 자연과학적 방법만이 아니라 정신과학적 방법이 함께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두가지 방법은 합리적이고 정돈된 인식의 과정을 위해서 학문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자연과학적 방법인 '분석'의 과정은 비교적 학문적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정신과학적 방법인 '해석'의 과정은 다분히 비합리적이고 무질서한 경향으로서 학문적 체계가 불분명함을 알 수 있다. 물론 '미적판단'으로 대별되는 정신과학적 영역에서의 직관적 판단의 특징적 경향이 그 원인이지만, 보다 객관적이며 설득력 있는 이해를 구하기 위해 학문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건축작품의 '해석'의 과정에 해석학(解釋學)의 활용을 제안하며 해석학의 개요와 해석학과 건축작품이 어떻게 관계지을 수 있는가를 논하고자 한다.

1. 해석학(解釋學)의 개념

해석학(Hermeneutik, hermeneutics)의 어원은 희랍어 hermeneuein에서 유래¹⁾하며, <진술하다, 표현하다, 설명하다, 번역하다, 통역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라틴어 interpretari와 동의어이다. 원래 해석학이 학술적으로

사용되기는 성서해석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17C 이후 신학(성서해석), 문학(예술작품해석), 법학(법전해석), 역사학(자료의 평가) 등의 분야에서 텍스트의 해석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보조학문으로 발전되어온 해석의 기술 이론이 Schleiermacher 이후 비로소 <이해의 이론>(theorie des verstehens)으로서 독립된 학문으로 정립되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그 개념이 확대되어 성서해석 이론, 일반적 철학방법론, 언어학적 이해의 학문, 정신과학의 방법론, 실존적 현상학, 신화나 상징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해석체계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와같이 해석학이 주로 문학관련 분야의 이론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건축작품에의 활용에는 다소간의 문제들이 있으나, 해석학의 기본적 개념을 상기할 때 건축작품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탐구해야할 분야임을 알 수 있다.

2. 해석학 이론의 전개

1) Fr. D. E. Schleiermacher

가. 해석의 정의
다른 사람의 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기술을 말하며 <도치된²⁾ 문법>이며 <도치된 구성>이다.

나. 작품해석의 관점
작품은 작품의 전체성과 저자의 종합적 사고의 이중적인 관계이며, 작품의 의미 인식만이 아닌 작품의 발생, 관련성, 동기를 포함한 작가의 생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내적 형식'의 파악이 필요하다.
다. 작품해석의 방법
심리적 해석이 중요하며 신령적 행위와 저자에의 함입에 의한 내적과정의 파악이 필요하며 이는 창조적 행위의 추형성

(nachbilden)이다. 역사적 해석과 신령적 해석, 객관적 해석과 주관적 해석의 융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작가 및 작품과의 이질성은 '감정이입(einfühlung)' 능력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2) Wilhelm Dilthey

가. 해석의 정의
문자로 이미 기록된 생의 표현을 이해하는 기술이다.

나. 작품해석의 관점
작품의 표현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그 작품 배후의 정신성, 즉 특정시대의 관습, 의식, 이념과 생활양식 등의 해명이 중요하다.

다. 작품해석의 방법
체험, 표현, 이해의 삼각관계³⁾로 파악해야 하며 유추결론에 의해서 일반성에서 특수성으로, 다시 특수성에서 일반성으로의 귀납결론에 의해 타자의 체험으로 함입하는데 이로써 '자기함입'⁴⁾으로 치환된다. 자신의 전체성이 타자의 정신 세계와 동화하기 위한 전이로서 정신적 추형성이 이루어지며, 이는 추체험적 창조(nacherlebendes schaffen)이다.

3) Martin Heidegger

가. 해석의 정의
모든 존재론적 연구가능성의 조건을 완성시키는 일이다.

나. 작품해석의 관점
유한성과 가능성의 대립적 관계를 포함하는 피투(被投)⁵⁾된 존재(작품)를 존재론적 선입관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며, 저자의 의도보다 주제내용의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다. 작품해석의 방법
전지(vorhabe), 전시(vorsicht), 전취(Vorgriff)는 기획의 목표적인 현존재(작품)를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의미요소(Sinnantizipation)를 형성⁶⁾하며, 긍정적 선입관을 가지고 '사실 그 자체'로 해석해야 하고, 해석자는 항상 지향성을 가지고 작품을 대한다.

4) Hans Georg Gadamer

(주) 1. Heidegger는 신화적으로 사자의 신인 Hermes와 관련시키고 있다.
2. <도치적> 학문의 개념에는 사실들의 변증법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해의 기술>로서 해석학은 <논쟁의 기술>로서의 변증법과 나아가서 수사학, 특히 비평과 관계를 맺는다.
3. 타자의 표현에서 나는 나의 체험의 수용과 작용, 평가를 알게되고 이 전체적인 조직 속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가. 해석의 정의

상이한 지평의 융해인 이해의 성취이다.

나. 작품해석의 관점

해석학적 상황으로서 선행적인 영향사적 의식⁷⁾의 해명이 중요하다.

다. 작품해석의 방법

‘전승’의 운동과 해석자의 운동이 융화작용에 의해 해석이 이루어지며, 해석자는 작품속에 함께해야 한다. 이해, 해석, 응용은 일반적인 것 자체(작품)의 실제적 이해의 요소이나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해석자는 정당한 선입관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며, 작품이 소유하고 있는 상징성을 파악해야 한다.

5) Emilio Betti

가. 해석의 정의

관념적인 것과 실재적인 것을 포함하는 객관성에 직면하며 이해에 도달하려는 목적을 지닌 활동이다.

나. 작품해석의 관점

저자와 해석자는 창조물의 가치를 정당하게 다루기 위해 지적이며, 도덕적인 수준을 동일하게 지녀야 한다. 또한 주체가 이미 속해 있는 의미있는 전체성을 향해야 하며, 완성되지 않은 창조물의 의미를 찾게 된다.

다. 작품해석의 방법

해석의 이론적인 계기

- ① 문헌학적 계기~말의 문헌적이며 논리적인 일관성에 관한 재구성을 이해
- ② 비판적 계기~근본요소와 첨가요소의 분리와 같이 불일치, 비논리적 언명이나 격차의 발생을 탐문
- ③ 심리적 계기~독자를 저자의 위치로, 저자입장 재인식·재창조.
- ④ 기술적·형태론적 계기~객관적·정신적 세계의 의미 내용을 그 특수한 논리와 형성원리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

라. 해석의 유형들

- ① 재인식적 유형~자기 목적적·자신을 위한 이해.
- ② 재생산적 유형~체험전달의 목적.
- ③ 규범적 유형~행동지침의 마련

6) Jürgen Habermas

가. 해석의 정의

자연언어를 완전히 ‘숙달하기’까지 우리가 획득해야 할 ‘능력’.

나. 작품해석의 관점

언어와 실재의 독특한 통합과 언어적 분석과 경험의 조응을 통해서 해석학적 순환⁸⁾이 해결된다.

다. 작품해석의 방법

소통적 측면과 비판적 관점의 양면에서 기초해야 한다. 현대의 지배적인 규범과 행동유형은 전통에 의한 것일 때는 그 독단적인 요구성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없다. 해석을 위해 정신분석학을 도입했다. 이상의 이론외에 해석학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E. D. Hirsch, R. Bultmann, P. Ricoeur, P. Szondi 등의 이론이 있다.

3. 건축작품 해석의 관점과 방법

작가의 창조적 결과물에 대한 해석자의 추형성(追形成)의 올바른 관점과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본 논고의 중요한 쟁점인 바, 먼저 해석학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논지들을 종합하여, 건축작품의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해석자는 작품을 대하기 전에 우선 작가와의 동일성 확보를 위해 작가와 동등 수준의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과 디자인이론 등의 지적인 면과 생활양식, 관습, 의식구조 등의 도덕적 면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시대적 이념, 작품배후의 정신성, 작품발생의 동기와 사회·경제·정치적 관련성의 파악을 포함한 작품의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요구된다. 이런 전제는 Heidegger가 말하는 존재론적 선입관(긍정적 선입관)의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또한 Gadamer가 말하는 선행적인 영향사적 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대하여야 하는데, 이는 객관적인 ‘전승’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작품은 작가의 의도에 상반없이 ‘작품 그 자체’ 특히 작품의 의미 혹은 주제 내용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언어적 분석과 경험의 조응이 필요하다. 건축언어의 보편성은 경험을 통해서 성립되며 따라서 언어적 분석에 의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의미가 파악된다.

또한 일정한 지향을 가지고 작품을 대하여야 하는데 작품과의 불일치, 격차 등의 해소에 중점적 관심을 가지고 소통적 측면과 비판적 측면의 양면에서 기초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도 남아 있는 작가 및 작품과의 이질성은 작가 및 작품과의 합일에 의한 내적과정의 파악과 감정이입⁹⁾

능력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결국 역사적·신령적 해석의 융합과 객관적·주관적 해석의 융합이 요구되며, 이에 심리적 해석이 매우 중요시 된다.

4. 말(末)

건축작품의 해석에 있어 작품이 형성될 당시의 모든 상황을 배제하고서는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없다. 모든 건축물은 이미 당시의 상황을 떠나 현존하고 있지만 ‘현존’ 내에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평⁹⁾에서 그 건축물을 대하는 해석자가 그러한 상황을 낱알이 알고 해석하는 것만이 옳은 것인가? 그렇다면 아무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해석학적으로 현존하는 것은 작품자체로서만 있는 것은 아니며, 해석자에 의해서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해석자가 작가와 함께 작품의 존재원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상황에서의 작가·작품·해석자를 가정하더라도 올바른 해석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결국 올바른 해석의 기준을 설정하지 못 할 때 건축작품에 대한 해석학의 응용은 자연과학적인 분석의 과정에 다만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공허한 외침에 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훌륭한 이해>를 향한 <사실 그 자체>에의 접근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

- 4. 심리학적인 감정이입과는 달리 자신의 전체성이 타자의 정신세계와 동화하기 위한 전이의 작용이다.
- 5. geworfen
- 6. <의미메료>로서의 <전지>가 발생적 양상이고 <전시>에서 발생적 해명을 위한 연결점이 나타난다면 <전위>의 영역에서는 발생적 양상이 완전한 작용을 하게 된다.
- 7. 우리를 의식유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과거를 인정하는 것.
- 8. 이해의 존재론적 조건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우리를 전통에, 특수하게는 우리를 해석대상의 전통에 연결시켜 주는 연대성에서 진행하며, 목적성과 보편성이나 이론과 실천사이를 연결시켜 준다.
- 9.地平(Horizont), 어떠한 시점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시각권을 뜻한다. 视界.

참고문헌

- 高委泰 : 해석학과 문예학, 서린문화사, 1983.
- Josef Bleicher : Contemporary hermeneutics, Routledge & Kegan, London, 1980. (권순홍 역) : 현대해석학, 한미당, 1983.
- R. E. Palmer : Hermeneutics, Interpretation Theory in Schleiermacher, Dilthey, Heidegger and Gadamer, Evanston, 1969.
- Bruno Zevi : Architecture as Space, trans. by Milton Gendel, ed. by Joseph A. Barry, Horizon Press, New York, 1974.